

자연환경보전 현황

세계의 선진국들은 개발 우선 정책에 의해 파괴되어 가고 있는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대책을 예전부터 수립하여 추진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 이에 못미치고 있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요즘들어 그 인식을 달리하여 추진하고 있는 자연환경 보전계획(94)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편집부>

1. 자연환경보전의 필요성

자연환경은 인간 및 자연 생태계의 근원적 역할을 하는 생명의 원천이다. 그러나 산업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국토개발 및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자연환경의 훼손과 생태계의 파괴가 날로 심화되고 있어 자연환경보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부터 국민들의 욕구가 생활환경오염의 제거로부터 자연과의 접촉을 통한 쾌적성 추구하고 여가시간을 활용하려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통해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전하는데 노력해야 할 시기에까지 와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의 개발우선정책으로 기인하여 자연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SOX, NOX, H₂S, CO₂ 등)들로 산성우발생에 의해 전 유럽 산림의 35%(체코 71%, 독일 52% 등)가 피해를 입고 있으며 생물의 생존이 불가능한 호소가 증가(캐나다 14,000개

표1. 산림훼손의 주요 원인

공장부지	골프장건설	도로건설	광산개발	농지초지	기 타
22 %	18 %	16 %	12 %	9 %	23 %

전체의 15%)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남미, 동남아,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각종 개발로 열대 우림이 연평균 11만km²씩 파괴되고 CO₂증가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어 기상 이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해도 일어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연간 6만km²의 비옥한 토지가 황무지화되고 과도한 벌목으로 지구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생물생존기반이 열악화되는 등 각종 개발에 따른 서식지의 파괴, 환경오염 등으로 세계적으로 매년 2만 5천~5만종의 생물종이 멸종, 2천년까지 전체생물종의 20% 감소될 전망으로 있어 자연환경보전의 필요성은 더욱 고조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약 70%가 산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서식하는 야생 동·식물은 약 22,000여종으로 파악되고 있고 특히 비무장지대는 1953년 이후 40여년간 인

간의 간섭을 받지 않아 희귀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를 유지하므로 국제적으로 자연환경의 보고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도시화와 개발사업에 따른 산림면적의 감소, 환경오염 등으로 많은 야생생물종이 감소 또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으며 야생동물 서식지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멸종위기종 26종, 감소추세종 35종, 희귀종 73종 등 총 179종의 야생 동·식물을 특정야생동·식물로 지정하여 보호중에 있다.

2 우리나라의 자연환경보전 대책

국내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가 서로 연계하여 분산관리하고 있다.

특히 대책방안으로 자연환경보전업무 추진협의체를 관련부처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효율적보전을

위한 부처간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1) 자연생태계보전

자연환경보전 대책 수립을 위해 국토전반의 자연환경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지역을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생태계 훼손 및 파괴를 예방하고 있으며 전국토의 5% 내외(약 5,000km²)보전지역을 확대지정하여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각 보전지역의 지정추진을 보면, 녹지보전지역은 자연원시림, 이에 가까운 삼림, 고산 초원등 전국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으로 확인된 지역의 40%이상(약 4,000km²)을 녹지보전 지역으로 지정추진하고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은 20개 지역이상, 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은 5개 지역이상, 해양생태계보호지역은 5개 지역이상을 추진하고 있다.

(2) 야생동·식물보호

각종 개발사업과 무분별한 포획, 채취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보호와 외국에서 무분별하게 도입된 생물종에 의해 교란된 국내 생태계를 관리하기 위해 야생동·식물보호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야생동·식물 불법 유통체계를 단절하고 보호대상 동·식물의지정을 확대, 외래 동·식물종의 도입을 규제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3) 국제적 야생동·식물보호

국제적으로는 생태계파괴 심화, 남획, 서식지 감소, 외래종 침입 등이 야생동·식물멸종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국제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 과학적, 생태학적으로 건전한 전략방안을 위해 설립된 국제자연보존연맹(IUCN)과 국제적으로 중요한 물체의 서식지인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람사조약이 채택되었으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종·생태계 및 유전자원의 보호를 위해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는 등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따른 국제적인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만약 야생동·식물보호에 비협조적이며 불법으로 유통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에 비난을 면치 못할 뿐만 아니라 무역제재의 압력을 받게 되어 이에 참여는 불가피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각종 국제협약에 적극적인 동참과 아울러 이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각 국제협약에 가입하여 각종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4) 자연환경 및 녹지의 효율적 관리

산림은 보이지 않는 산소공장으로 산림의 1ha는 연간 탄산가스 16톤을 흡수하고 산소 12톤을 방출하며, 소나무 10그루는 1사람이 필요로 하는 산소 270kg을 공급한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65%인 6,464천ha가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상별로는 침엽수림이 45% 정도이고 활엽수림 26%, 혼합림 27%, 기타 2%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도시·공단등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타용도 전환 등으로 산림면적은 연평균 7.2ha씩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자원의 보존과 유지하는 인간의 생존환경과 생물의 생존환경의 손실을 막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므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자원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에는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어 정부만의 힘으로는 보전효과를 제대로 거두기는 힘든 것이므로 민간단체 및 기업,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참여와 적극적인 활동이 함께 어우러져야만이 우리의 자연환경을 보전·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표2.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지정대상

구 분	종 류	지 정 기 준
자연생태계 보전 지역	녹지보전지역	자연 원시림, 이에 가까운 산림 고산초원등 지정
	자연생태계 보호 지역	자연상태 원시성 유지, 고유 생물종의 서식지, 자생지, 학술적가치가 큰 지역중 지정
	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	특정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해양생태계 보전 지역	수려한 자연해안, 해중 암석지중 지정